



“우리와 아버지 같이 시고 평상시 유우머 있으신 별명 “오리”과장님의 아침 조회로부터 사업과 전 직원은 피스톤처럼 활기찬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과는 아버지 같이시고 평상시 유우머 있으신 별명 “오리”김봉수 과장님의 아침 조회로부터 사업과 전 직원은 피스톤처럼 활기찬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지부 원동력의 근원이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하고, 많은 책책질을 당하는 우리 사업과!

사업과의 터줏대감인 이정일 계장, 평상시 말을 잘안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 구분 있게 행동하는 이 계장은 모범직원인데 틀림없다. 생김새도 썩썩하고 우량아인 만두 서강복씨, 도시락가방 옆에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부터 퇴근시간까지 늘 많은 업무에 하나 둘 늘어나는 흰머리카락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일하는 서

강복씨. 묵묵하고 평상시 은근히 유우머 있게 행동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남 성미 흐르는 김중하씨.

사업과의 전 직원과 더불어 지부 전 직원의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눈이오나 비가오나 쉴새없이 외부에서 발바닥이 부르틀정도로 사업추진에 여념이 없는 윤희동계장, 仁川 짠물이라 얻어진 별명이 망둥이라기 보다는 눈의 생김새가 부리부리하고 늙름한 해병대 출신의 윤계장.

지창조씨는 사업추진요원초년생으로 86년 한해를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녔던 기린같은 사나이, 흰칠한 키에 왕년에 농구선수였던 지창조씨는 누구와 대화에 있어

서 원만히 처리하는 처세술에 강한 의지의 사나이이다.

경상도 보리문둥이 사나이 中の 사나이 김상환氏. 제트기처럼 빠른 말씨에 온통 정신을 빼있었다. 되찾았다 하지만 사업과의 청결문제라면 손발 다 걷어부치고 솔선부범하는 부지런한 한 영감 김상환씨. 은근히 주량이 세기도 하다(“소주4 병이 정량이니까 말이다.”)

우리 사업과의 민방위 대장의 명칭이 불을만큼 회안한 한국이 낳은 비바리Kim 늘 여자다운 외모에 내면적인 성격이 씩이나 좋은 김홍식氏. 지난 86년도에 역마살이 끼었다며 이마에 주름을 잡으려고 무던히 애써 보지만 준수한 외모에 걸맞지 않은것 만큼 인상이 좋다. 외모와 달리 팔씨름은 협회의 제 1인자 이기도한 김홍식氏. 조그마한 체구에 조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작은고추가 맵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업무에 몰두하는 집념의 사나이 김승오氏. 부지런하며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직원 김승오氏는 술좌석에서 만큼은 단연 어른중의 어른이다. 몽롱한 정신이 되면 배꼽을 자아나게하는 황실수술에 누구도 두 손을 든다. 홍보사업에 여념이 없는 신동구씨 여기저기 홍보 활동에 모든것을 건듯 불타는 신념이 큰 만큼 홍보관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멋진 일꾼이다. 뛰어난 유우머와 장기 자랑에 능수능란한 기타리스트의 제 1인자인 신 동구씨는 분명 팔방미인임에 틀림없다. 우람하고 건강한 체구의 황금이를 가진 황성수씨. 무던한 성격에 모든 사람들로

부터 신뢰감을 준다.는 지부 전 직원중 가장 숨겨져 있는 일꾼중의 일꾼임에 틀림없다. 고교시절 미식축구 선수였던 시절과 같이 규율있는 생활범위에 말없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해나가는 유능한 일꾼이기에 이 빈약한 필자는 황성수씨의 앞길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사업과 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모범직원임을 새삼 밝히고 싶다. 긴장한체구와 의리의 사나이 이윤식씨 더듬더듬거리며 말하는 이윤식씨는 체격과는 달리 세심하게 묵묵이 일해 나가는 반면 사업과 아니 지부 全職員중에 유머가 풍부하기로 소문난 제 1인자이다. 늘 웃음뎀 얼굴로 평안함을 주는 이윤식氏,

착하고 어질은 홍보관의 이지선氏. 늘 남자 직원과 생활을 하다보니 남성화된듯 남자직원의 짓곳은 표현에 너그럽게 유우머 있게 행동하는 암전한 노처녀 이지선씨 울봄에는 국수를 먹게해 주겠다고

사업과의 꽃이며 가장 어린 막내동이인 임선옥씨-“씨”자를 부치니 웬지 서먹서먹하다. 우리 미스임은 땅딸한 체구에 사과처럼 붉은 예쁜 볼과 항상 밝은 얼굴로 사업과의 직원에게 훈훈함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miss 임. 하는일이 많고 늘 책상에서 결과통보에 여념이 없다.

이처럼 많은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나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가식이 아닌 眞實의 소산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사업과의 모든 직원에게서 사랑과 진실을 배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필자=서영준 서울시지부 사업계장)